

# 안동권씨정조공파 경로잔치 개최

안동권씨정조공파(正朝公派 : 회장 권인택)는 9월 10일 오전 11시 안동시 송현동 <목향> 2층에서 제11회 경로잔치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정조공파중회 고문을 비롯하여 권계동 대종원 상임부총재, 권주연 안동종친회장, 권재주 안동종친회 직전회장, 권영목 고문, 권오정 부호장공파중회장, 권병균 부호장공파 직전회장, 권중덕 시중공파 회장, 권기덕 별장공파 부회장, 권기만 권오탁 권기룡 역대 정조공파 회장, 권기창 안동대학교 교수, 권택기 전 국회의원, 권영택 능우회장, 권기락 능곡회장 등 65세 이상 노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권혁조 총무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묘소배, 상음례(相音禮)의 순으로 이어졌는데 권인택 회장은 참석한 내빈을 일일이 소개하고 김광림 국회의원의 축전을 낭독했다.

권인택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봄에는 가뭄으로 농민들이 애를 태우다가 메르스(MERS)까지 발생, 전 국민이 애를 태웠다고 회고한 후 오늘 여기 온 모든 사람들은 집안끼리 모여 뜻 깊은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1년 동안 480여 명에게 총 1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아울러 후손들에게 보학장좌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고려초 중기 권정평(權正平)의 묘지명(墓誌銘)이 발견됨에 따라 당시 향리에서 중앙으로 진출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대종원 총사연구위원회 회의 때 전반적으로 보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북도청이 안동에 오면 단합된 안동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계동 대종원 상임부총재는 격려사에서 노인이 되었으니 어느 모임이 있으면 <까지 말고>, 참석하여 <까지도 말고>, 일일이 <까지 않는> <빠, 빠, 따>하자고 하였다. 건강장수(健康長壽)의 비결(秘訣)은 건강(健康)함을 과시(誇示)하지 말고 올바른 건강생활(健康生活) 습관(習慣)과 식생활(食生活) 방법(方法)을 알고 이를 꾸준히 실천(實踐)함이라고 하였다. 오늘도 건강정보(健康情報)를 비롯한 좋은 정보교환(情報交換)도 하고 족의(族誼)와 친선(親善)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보람 있는 하루가 되기를 <보도부장 권영진>

# 제4회 능동고택 음악회 개최



△능동제사에서 능곡회가 주관하는 제4회 음악회가 열렸다. (원내 권기락 회장)

안동시가 주최하고 능곡회(회장 권기락)가 주관하며 안동시, 안동권씨대종원, 안동종친회, 안동권씨정조공파중회가 후원하는 <2015년 제4회 능동고택 음악회>가 9월 12일 오후 6시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능동제사 추원루(追遠樓) 앞 잔디밭 광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음악회를 개최하기 전에 권기락 능곡회장, 권영택 능우회장, 권순창 권혁철 양회(兩會)의 두 직전회장,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 권택기 전 국회의원, 능곡회원 및 능우회원 등 20여 명이 시조묘소에 올라가 고유(告由)를 하였다. 권영세 안동시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대종원 상임부총재, 권주연 안동종친회장, 김광림 국회의원, 권오를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능곡회 및 능우회 회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스토리 텔링 류필기 사회자는 해박한 지식과 품격높은 말 솜씨로 멋있고 깔끔하게 진행을 했다. <뿌리깊은 고택에서 들려오는 능곡의 음악소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식전행사로 국악과 50~60대로 결성된 봉사단체인 '두들림' 소속 남녀 5명이 북을 신나게 두드리면서 난타공연을 하였다. 이어 권용승 초대가수가 '월영곡' '안동머슴이' 두 곡을 부르자 관객이 앙코르(encore)송을 청해 불렀다. 전 능곡회 권영훈씨가 내빈소개를 한 후 권기락 능곡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 건축미학이 살아 숨 쉬는 고택에서 전통 문화 공연을 함으로써 문화 예술 발전은 물론, 고택에서 들려오는 음악소리와 가을밤의 고택 풍류를 즐기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려 달라"고 당부했다. 제일 먼저 전국 국악대전에서 금상을 차지한 바 있는 김남이씨가 대금을, 대구 예술영재교육원 강사이고 해금 앙상을 아로코 음악감독인 최운정씨가 해금을 연주했다. 이어 실경뮤지컬 '연이남자'에서 연이남자 역과 뮤지컬 '원이엄마'에서 원이엄마 역을 맡은 스포트라 김민서씨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또 경북화랑문화제 성악부분에서 금상을 받은 테너 조정민씨가 우렁차게 노래를 하자 앙코르송이 쏟아졌다. 사회자는 출연자들의 노래와 연주가 끝날 때 마다 안동권씨에 관한 소상 시조 권영, 조선시대 안동권씨가 과거급제한 인원수, 안동시 풍천면 기림마을에 얽힌 이야기 등 많은 것을 일깨워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초청가수 순서에서는 안동이 고향이라는 초청가수 권용씨는 '사랑아 내사랑아'를 부르고 앙코르송으로 '부용대' '연가' '오일장' 등 부르자 또 앙코르송을 받아 들여 '아미세' '홍도야 울지마라' 등 메들리(medley)를 연달아 신나게 불렀다. 2006년 탈북해서 현재 한국에서 가수 겸 방송인으로 맹 활약하고 있는 김정원씨는 자신의 본(本)이 안동김씨라고 밝히고 처음에는 '휘파람' 노래를 부르자 앙코르송이 쏟아져 '동백야가세' '인연' '사랑가' '텐미미' 등 연달아 불렀는데 특히 중국노래 '텐미미'를 감칠맛나게 부르자 많은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KBS, MBC, SBS 가요프로에 활동중인 초청가수 더너우씨는 '세월강'을 부른 후 분위기를 살리는 뜻에서 무대 아래로 내려와서 관객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추면서 '안동역 앞에서' '강원도 아리랑' '남평 열차' 등 메들리로 불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초가를 밤 날씨가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뿌리깊은 고택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가 능골로 울려 퍼지는 바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2시간 30분 동안 흥분의 도가니로 흥분 빠져들게 하였다. 주최 측은 추위에 대비하여 소형담요와 따뜻한 물, 커피, 녹차, 떡 그리고 음료수를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나눠주었으며 행사가 끝나자 능곡회원들은 초청가수 더너우씨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행사를 마친 능곡회원들은 안동종친회관 1층 '양반밥상' 식당에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권영진 보도부장>

# 제12회 옥소종합예술제 개막

충북 제천에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6일까지 제천옥소예술제추진위원회 주관하고 제천시, 충북예술연합회, 안동권씨화천군중 등이 후원하는 제12회 옥소종합예술제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이 낳은 조선후기의 최고의 문인으로 영남과 호남 그리고 기호의 대작가들과 여계를 나란히 하면서 호서의 금지를 우뚝서게 한 옥소(玉所) 권섭(權燮 1671-1739)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제천의 종합예술제가 옥소선생의 탄생 344주년을 즈음하여 4일간의 일정으로 성대하게 열렸다. 옥소 권섭(28세) 선생은 시중공파로 숙종조 의정부좌의정을 역임한 文純公 權向憲의 조카로 조선 후기 문학, 그림, 음악,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 예술의 혼을 펼치신 분이므로 이 지방에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2000수가 넘는 한시와 75수의 한글시조, 도통가 등의 가사와 800여 통의 편지글, 그리고 80여편의 그림을 남긴 예술가였다. 호서문화의 근간으로 황강학파의 대표적 유학자로 평생 동안 전국 명산 대첩을 찾아다니며

주목같은 작품을 남기셨다. 89세의 장수를 누리며 그 동안 安奭을 4차례나 방문하여 시조묘소를 참배하고 안동의 문인들과 연을 맺은 분이시다. 고유제는 伯父 권상하, 父 권상명, 玉所 본인, 弟 권형 4분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門巖影堂에서 11시에 올리고 오후 3시 개막식 축하공연에 이어 본격적인 예술제가 열리게 되었다. 9월 6일까지 4일간 열리는 옥소종합예술제는 옥소문학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시민백일장, 미술전, 사진전, 시화전, 분재작품전, 국악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와 문화행사로서 지역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옥소선생의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는 주자의 무이도가(武夷懋歌)와 이이(李珣)의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의 맥을 이은 작품으로, 시시적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1704년(숙종 30)에 지은 기행가사 '영삼별곡(寧三別曲)'과 1748년(영조 24)에 지은 '도통가(道統歌)'는 걸작 중 걸작이다. 선생의 시는 주제·소재·시어·기법 면에서



모두 파격적 참신함을 보여 준 점에서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전통의 터전 위에서 새롭게 열리는 근대기를 내다보면서 새로운 시의 세계를 창조해 낸 점이나, 시기적으로 정철(鄭澈), 박인로(朴仁老), 윤선도(尹善道)의 시 주맥(主脈)을 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동사무소 : 권오익 총무부장>



△연영당 고유



△공연 한마당

# 雲谷書院誌

(운곡서원지)

<지난호에 이어>

지인이 미상의 주사상량문(廚舍上樑文)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초창기에 물력(物力)이 조달되지 못하여 주사(廚舍)의 규모를 갖추지 못하여 수십 년 동안 공양(供養)을 해오면서 항상 바람과 비의 어지러운 날씨를 근심하고 탄식했는데 한 두 사람이 경영할 것을 도모하여 정월 초하루의 회합에서 이를 결단하고 좋은 날을 잡아 터를 개척하여 먼저 뒷채와 아랫채의 규모를 구성하면서 좋은 목수들을 불러 도끼와 자귀질을 하되 거기에 중당(中堂)과 협실(夾室)을 두는 제도를 잃지 않으니 어찌 다만 한 집안에서 경하(慶賀)할 일이었는가. 또한 뒷사람이 아버지를 찾듯 모여들 일이다. 드높이 일어나 나라를 펴서 임하니 이로써 사당은 더욱 중후해 보이고 그윽하고도 깊으며 예뻐서 굽어드는 시내와 산이 광채(光彩)를 내는 것을 다투어 말하는데 배기들로 제물을 공헌(供獻)하는 것이 이로부터 더욱 정결(精潔)해질 것이며 조석으로 조리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마땅히 갖추어 살게 되니 하루아침에 돌연히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고종 5년 무진년(1868) 봄

고종 5년 무진년(1868) 봄에 상장을 권하운(權河運)으로, 유사를 권철운(權哲運)으로 하였는데 이 해에 서원을 철폐하라는 국가 명령이 내려 휘철(毀撤)되었다. 이로써 추원사가 창건된 후 88년에 철폐되니 자손이 울탄(鬱恨)하였다. 사당을 철폐한 뒤에 후손은 그 위판(位版)을 탑산(塔山)에 매안(埋安)하고 사당 자리에는 고종 28년 신묘년(1891)에 제단(祭壇)을 만들고 담장을 둘렀다. 거기에 향화(香火)를 받들면서 국가 명령이 풀리는 날에 재건할 것을 도모코자 하였다.

광무(光武) 5년 신축년(1901) 겨울

그런데 다시 10년만인 광무(光武) 5년 신축년(1901) 겨울에 양산(梁山) 통도사(通度寺)의 중 고산(古山)이 '추원사의 터가 원래 사찰(寺刹)의 경계에 속해 있었다'고 하여 일대가 불가(佛家)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강탈하고자 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것은 당시 권씨에게 호감을 품지 않고 있던,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관제가 개혁된 후의 경주군수(慶州郡守)가 통도사의 중 고산(古山)을 시주(使助)하여 '추원사의 자리가 옛적의 절터인데 권씨들이 점유하여 훼손된 추원사(追遠祠)를 세운 것'이라면서 허위로 고발하여 반환을 주장케 한 일이었다. 고산(古山) 등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경주군에서는 추원사를 창건한 주역인 갈산(葛山) 권종락(權宗洛)의 증손인 권의일(權宜一)을 투옥하고 금(金) 1만냥을 요구하며 가혹한 박해를 가했다. 권의일의 조카 국포(菊圃) 권옥영(權玉永) 등이 속이 상하여 항소(抗訴)하였으나 군수의 명령으로 접수가 거부되고 관문(官門)에서는 나졸이 제지하여 동헌(東軒)에 접근도 할 수가 없었다. 광무 5년 신축년(1901) 권의준(權宜濬)·권의룡(權宜

龍)·권동술(權東述)·권태술(權泰述)·권규영(權奎泳) 등이 연명으로 경주군수에 게 보낸 정문(正文 : 하급 관아에서 동일한 계통의 상급 관아로 올리는 공문)을 보면 그 발단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통도사의 총승(總僧)이 사찰의 유허(遺墟) 시비

"경주 백성 권규운(權奎運)·권의일(權宜一)·의중(宜中) 등은 강동면 국당리(江東面 菊堂里)에 거주하면서 삼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의 시조 태사공을 예향(禮享)하는 사당이 운곡(雲谷)에 있어 그 천석(奠石)을 가꾸고 보호한 것이 이미 3백 년이 더 되었으나 옛 절과 옛 탑이 남아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또한 저희들의 선영이 거둬하여 그 동학(洞學)에 있어 상석(床石)을 설치한 것이 오래입니다. 만 번 뜻밖에도 통도사의 총승(總僧)이란 자가 감히 속인수를 써서 '이 동네가 옛 사찰의 유허(遺墟)'라고 일컫고 또 '탑을 깨뜨려 그 돌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보상금 1만 냥을 저희들에게 내라고 책징(責徵)하기까지 저희들은 그 부당하다는 이치를 명백해 말해 밝혔습니다. 저들 중은 다시 속인수를 꾸며 시찰사(觀察使)의 체포 명령이라 자칭하고 공문도 없이 역졸(驛卒) 서너 명과 함께 와서 심하게 위협하며 체포하므로 저희들은 부득이 군방(軍房)에 잡혀와 갇혔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시찰사가 떠나 뒤에 그 중과 역졸이 또 통도사로 옮겨 가둔다고 하는지라 저희들이 공문이 없다는 것을 들어 겨우 모면했는데 어찌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수님께서 돌아오셨으므로 이에 감히 우러러 소청하오니 일드려 빌건대 통촉(洞觸)하신 후에 특별히 엄한 영을 내리시어 저 완악(頑惡)한 중으로 하여금 치하(治下)에 있는 백성에게 폐단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군수님께서 처분하십시오."

<다음호에 계속>

# 樞密公 派祖, 忠憲公 歲享 案内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177번지 단소에서 2015년도 세향(歲享)을 봉행하오니 많은 派親 들의 參祭를 바랍니다.

- ◇ 일 시 : 2015년 10월 18일 (셋째 주 일요일) 10시 30분
- ◇ 교 통 편 :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지하철 5호선 1,8번 출구 옆) 한국관광버스2대에 탑승(08시 15분 정각출발)
- ◇ 개인참제 : 개인별 참제 파친은 당일 09 : 30분까지 전진교 군 검문소에 도착 출입철차를 필히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지참 요망)
- ◇ 연 락 처 : 추밀공파 대종회 사무실(02-737-6423) 사무국장 : 010-8867-3177

2015년 10월 1일

樞密公派 大宗會 會長 權景哲

# 檢校公 派祖 秋享祭 案内

근계 종추지체에 파친된 평안하심을 양축하오며 아뢰을 말씀은 년중 최대 행사인 상주 검교공파 파조 추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코자 하오니 많은 참제를 바랍니다.

- ◇ 일 시 : 2015년 10월 28일(수, 양력) 오전 10시 ◇ 장소 : 상주시 공검면 울곡리
- ※ 추향제에 참석하실 분은 사전에 전화로 10월 20일(화)까지 서울 종친회 총무부장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추향제에 참석하실 분은 권영기 총무부장과 상의하신 후 2015년 10월 27일(화)오후 14:00까지 서울서초구민회관 앞에 대기하면 유료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 연 락 처 : 상주파조회 총무부장 권영호 : 010-9355-2968 / 서울파조회 총무부장 권영기 : 010-2990-4805

2015년 10월 1일

檢校公派 宗會長 權泰康 서울 檢校公派 宗會長 權五運